

장석웅 전남교육감, 초등학생 '인문영재' 격려

'문화유산답사기' 쓴 손불초 김용건 학생 면담 "독서 많이 해 훌륭한 역사학자로 성장하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난 조선 시대 백자 답항아리는 흰 색에 순박한 모양을 하고 있어 조선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순한 조선의 달'이라고 부르려고 해요."

TV 프로그램에 소개되며 '문화재를 찾아다니는 아이'로 더 잘 알려진 함평 손불초등학교 6학년 김용건 학생이 6일(목)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과 나눈 대화 중 일부이다.

김용건 학생은 이날 오전 아버지(김호영·42)와 함께 전라남도 교육청 5층 교육감실을 방문, 장석웅 교육감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이날 만남은 5개월여 전 한 약속으로 이뤄졌다. 용건 학생은 지난해 9월 2일 함평읍 엑스포공원 주제관에서 열린 '토콘서트'에 참

석해 평소 관심사인 역사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역사 교사 출신인 장 교육감이 각별한 애정을 표시했고, 흡족한 마음으로 "한 번 찾아와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용건 학생은 평소 관심이 많은 역사 공부와 문화·유적지 답사를 계속하며 '문화유산답사기'라는 책 출판 작업에 매진했고, 이날 출판을 앞둔 책 기본을 들고 장 교육감을 방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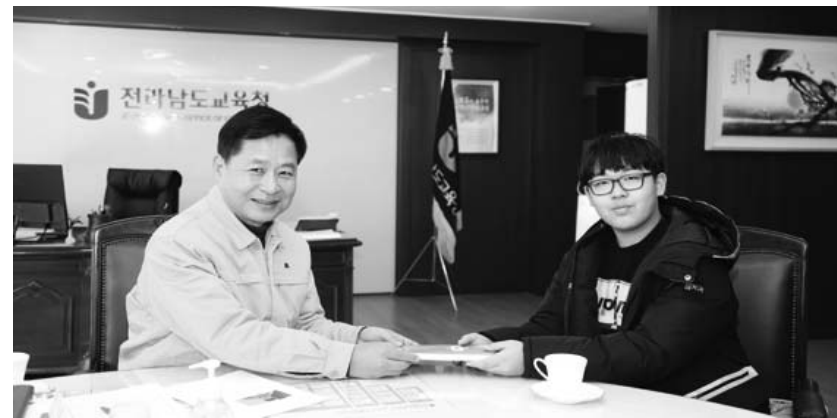
두 사람은 30여 분 동안 공동의 관심사인 역사와 문화재를 주제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특히, 대화 과정에서 드러난 용건 학생의 역사와 문화재에 대한 열의 깊이는 초등학생이라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전문적인 수준이어서 역사교사 출신인 장 교육감의 감동을 자아냈다.

장 교육감은 대화 도중 "국보 68

호인 청자상감운학문매병에 그려진 학이 몇 마리인지 아느냐?"는 자신의 질문을 "6마리"라고 서슴없이 답변하는 용건 학생의 깊은 식견에 혀를 내두르기도 했다.

용건 학생으로부터 곧 출판예정인 '문화유산답사기' 기본을 건네 받은 장 교육감은 "베스트셀러인 유홍준 선생의 '나의문화유산답사기' 못지않은 수작."이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이에 용건 학생은 "유홍준의 '나의문화유산답사기' 전 10권을 두 번 읽었고 얼마 전 유홍준 선생을 직접 만나 뵈었다."고 소개해 장 교육감을 더욱 놀라게 했다.

장 교육감은 "이제 중학교에 가면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모두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역사학자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그러려면 인문학 관련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독려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향토사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 교육감은 용건 학생이 쓴 책에 실을 격려사도 따로 써서 전달하며, 교사들처럼 학생들의 출판에도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용건 학생은 지난해 SBS TV 프로그램 '영재발굴단'에 '문화재를 찾아다니는 아이'로 소개될 정도로 역사와 문화재에 큰 관심을 갖고 공부해왔다. 그가 쓴 '문화유산답사기'는 그동안 발품을 팔아 부여와 공주, 익산 등 백제문화 유적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느낀 생각을 정리한 책이다. 그는 이 책

에서 부소산성과 낙화암, 무령왕릉, 송산리 고분군,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 등 교과서에서 배운 문화유적지를 초등학생의 눈으로 그려냈다. 특히, 전국의 많은 문화유적지들이 관리가 안 된 채 방치·훼손되는 현장도 고발했다.

용건 학생의 아버지는 "지난해 토콘서트 현장에서 가볍게 한 약속인데 이렇게 잊지 않고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이제 중학생이 되는 용건이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김광훈 기자

시교육청, 감사관에 '배민 감사원' 선정

광주광역시교육청이 3급 상당 개방형직위인 감사관을 공개 모집한 결과 배민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수석감사관이 최종 합격자로 선정됐다.

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개방형직위인 감사관은 공직 내·외부 관련 전문기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했으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 기관 등 전문가 12명이 응모했다. 교육청은 올해 1월6일부터 10일까지 5일 동안 원서접수를 거쳐 선발시험위원회 서류전형 후 1월30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후 면접시험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최종 합격자를 선정했다.

최종 합격자로 선정된 신임 배민 감사관은 1998년 감사원에 7급으로 입사했다. 2007년 행정안전부 감사국, 2009년 검찰관실 부감사관, 2016년 감사청구조사국 수석감사관, 2017년 공공감사운영단 운영심사와 수석감사관 등을 거쳤다. 시교육청 인사위원회는 배민 씨를 감사관으로서 전문적 능력, 변화관리 능력, 리더십 등을 갖춘 적임자로 평가했다.

배 감사관은 "청렴한 조직 문화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부정부패 예방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감사원의 최신 감사기법 등을 접목해 광주시교육청의 감사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게 저의 목표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근무 경험을 적극 활용해 원칙에 입각한 공정정대한 감사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임 감사관은 신원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3월1일자로 임용될 예정이다. 임용기간은 향후 2년이다.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수립·운영 △감사·진정·비위·청원사항의 조사 및 처리 △공직기강업무 △각급기관 감사의 수감·지원 및 결과처리 등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조인호 기자

전남교육청, 초등생도 알기 쉬운 자치 활동 자료 배포



전남도교육청이 '제대로 된 학생자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자치활동 안내자료 4종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2월 중 리플릿 형태의 초등용과 중등용 학생자치활동 길라잡이를 모든 학교에, 책자형태의 초·중등 공용 학생자치활동 안내자료를 모든 학교에 보급 중이다. 또, 초등 전용 'Q&A로 알아보는 초등 학생자치활동 길라잡이'를 모든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도교육청은 2020학년도 리플릿 형태의 자료와 초·중등 공용의 '학생자치활동 안내자료'는 지난해보다 쉽게 접하고 읽고 싶도록

만들었다. 특히, 'Q&A로 알아보는 초등 학생자치활동 길라잡이'는 초등 수준의 안내자료 보급을 바라는 학교현장의 요구에 맞춰 새롭게 개발한 자료다.

'초등 및 중등 학생자치활동 길라잡이'는 8개의 핵심 주제로 구성된 리플릿 형태로 제작해 휴대성에 초점을 뒀고, '학생자치활동 안내자료'는 초등과 중등이 공통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학생자치활동의 전반을 다루고 있다. 이번에 새로 발간한 'Q&A로 알아보는 초등 학생자치활동 길라잡이'는 초등학교 실정에 맞는 내용을 묻고 답하기 형식으로 구성했으며, 소규모 학

교와 중·대규모 학교 사례를 따로 제시해 학교 규모별 활용성을 높였다.

배부되는 자료는 도교육청 업무포털에도 탑재해 2020학년도 새학년 집중 준비기간(2월 하순) 학생자치 담당자들이 학생자치활동 운영 매뉴얼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2020학년도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안내자료 뿐 아니라 단위학교 학생자치활동 공간이 필요한 학교들을 지원하고, 지역 학생자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학생자치활동 담당자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다. 또 전남 학생의회와 연계한 지역 학생연합회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고등학교 학생(회) 제안 아이디어 및 공약 실현을 위해 공모를 통해 예산 지원할 예정이다.

김성애 학생생활안전과장은 "새로 발간된 초등 길라잡이를 포함한 학생자치활동 안내 자료들이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어 모두가 존중받는 민주적 학교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성은 기자



무안공圖 독서모임 성황리에 시작

'공간의 광막함과 시간의 영겁에서 행성 하나와 찰나의 순간을 공유하는 하나의 기쁨'을 나누는 의미 있는 모임이 있었다. 그것은 다음 아년 무안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한 '올해의 책 코스모스' 함께 읽기 독서모임이다.

지난 1일 운영한 첫 모임은 10대부터 70대까지 제빵사, 시인, 은퇴자, 성직자, 검도강사, 바둑강사, 요양보호사, 고등학생, 주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주민들이 무안공공도서관의 올해의 책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기 위해 자발적으로 찾아왔다.

독서모임은 무안공공도서관 유

미라 관장이 직접 진행하였으며 책 선정이유와 저자 이야기, 책의 구성 등을 소개하였으며, 회원들 간의 자기소개와 참여 동기를 공유하였다. 그리고 책의 서문과 머리말을 회원들이 돌아가며 읽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앞으로 독서모임 진행방법을 함께 논의하였다.

두 번째 모임은 1장부터 3장까지 읽은 후 각자 감동적인 부분을 공유하고, 독서토론을 할 계획이며, 다가오는 2월 29일 토요일 10시에 운영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